

2017년 12월 18일, 애월읍 하귀2리 김경출 씨 덕, 강경민 조사.

제보자1: 김경출(남, 1947년생, 애월읍 하귀2리)

제보자2: 김영자(여, 1947년생, 애월읍 하귀2리)

- 줄거리: 사람들이 상귀리 위쪽으로 넘어갈 때 빨래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사람을 홀리려는 도깨비 소리라고 전한다.

[제보자2] 상귀 우넉펜이 넘어가민. 빨래영 ‘닥, 닥’ 허는 소리 나난. 이제 보로미마을 알 넉펜이.

[제보자1] 거기도 귀신 잘 나는다.

[제보자2] 우리 밧 시난게. 우리 아버지네 이디 논골 외할아버지 집이 밤이 올 때민 게민 그딘 강 오고렌 허는. 그런 말 들어났저.

[조사자] 빨래 두들기는 소리? 무사 그런 소리가 난덴마씨?

[제보자1] 꼬시젠 허는 거주게. 사람을 홀리젠.

- 핵심어: 빨래 소리, 헛게(귀신), 상귀리, 보로미마을, 논골